

블랑팡이 선사하는 사랑의 노래

밸런타인 데이, 블랑팡이 여성만을 위해 특별히 헌정하는 아름다운 타임피스를 소개하며 여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사랑을 전하는 밸런타인 데이를 위해 디자인한 새로운 시계의 다이얼 배경은 19개 다이아몬드를 흩뿌린 머더오브펠 하늘과 4개의 "스타-셋(star-set)" 브릴리언트 컷 루비로 이뤄져 있다. 이 쟁세팅 기법은 메탈 베이스를 사용해 스톤을 다이얼에 세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랑팡 컬렉션에서는 처음으로 정교한 사파이어 문페이스를 6시 방향에 살짝 기울어지게 놓는 방식을 채택했다. 슬림한 테두리를 더해 장식했고, 문페이스의 열려 있는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극도로 여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달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인위적으로 여성의 얼굴에 그리는 일명 "뷰티 스팟(beauty spot)"은 18세기 유럽에서는 은밀하게 유혹의 의미를 전하는 역할도 했다. 왕정 여성들이 이 요염한 뷰티 마크를 어느 위치에 찍느냐에 따라 구혼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달라졌다.

문페이스는 블랑팡이 1980년대 초 다시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컴플리케이션이었다. 1980년대 이후 문페이스 기능은 블랑팡의 시그너처로 자리매김했다. 시계 다이얼 위에서 달의 주기를 보여주는 문페이스는 위치메이킹과 천문학 간의 깊은 연관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달의 얼굴은 현재 달의 주기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문페이스 메커니즘은 정확한 달 주기 29.5일의 두 번과 일치하는 59개 톱니바퀴 휠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달은 이 휠에 의해 구동되는 디스크에 두 번 나타나게 된다. 분침과 시침은 잘라낸 세이지 잎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초침은 큐피드 화살 모양을 적용했다.

빌레레 밸런타인 데이 2018은 29.20mm 사이즈의 스틸 소재 케이스로 선보인다. 베젤에는 48개 다이아몬드, 러그에는 2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크라운은 로즈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정교한 최첨단 기술

이 시계의 심장에서는 셀프와인딩 913 L 무브먼트가 박동하고 있다. 무브먼트는 정밀한 골드 레귤레이팅 스크루와 실리콘 소재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글루씨듀어(glucydur) 밸런스 휠을 탑재하고 있다. 최근 시계 업계에 소개된 신소재인 실리콘은 여러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다. 낮은 밀도 덕분에 무게가 가벼워 충격에 더욱 강하고, 자성의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덕분에 밸런스 스프링이 무브먼트의 등시성 운동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타임키퍼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준다.

이 시계의 사파이어 케이스백은 오로지 착용한 이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 로덤 플레이팅 옐로 골드 로터가 화살뿐 아니라 무수한 태양광선이 꿰뚫고 지나가는 하트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비비드한 레드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빌레레 밸런타인 데이 2018 모델은 각각 넘버를 인그레이빙해 새겨넣은 99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